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 Kostas Angelou linked to new VLGC order at Hyundai Heavy

현대중공업이 그리스 선주 Kostas Angelou로부터 dual-fuel VLG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. 선주측은 발주사실에 대해 부인했으나 시장관계자에 따르면, 91,000CBM급 VLGC가 척 당 7,590만달러에 계약 체결됐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

## Petronas homes in on shipbuilder for LNG Canada newbuildings

말레이시아의 에너지업체 Petronas가 최대 6척의 LNG선 발주를 위해 두 곳의 조선소와 접촉중이라고 보도됨. 두 조선소는 현대중공업과 중국의 Hudong-Zhonghua로 알려졌다. 해당 선박은 LNG CANADA 프로젝트에 투입 목적이며 3+3척 발주 형식으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됨. (TradeWinds)

## Maersk looking to order first green-fuel baby boxships within three years

세계 1위의 컨테이너선사 A.P.Moller-Maersk가 이중연료추진 시스템의 소형 컨테이너선을 3년 내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보도됨. 암모니아나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을 구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zero-emission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려졌다. (TradeWinds)

## More than 80% of firms invest in supply chain overhaul due to Covid-19

다국적 물류기업 DP World의 조사에 따르면, COVID-19는 전세계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됨. 2차례의 조사 결과 83%의 업체들이 자사의 공급망을 손봤으며 Post-pandemic 이후 시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

## 두산인프라코어, 프랑스 보룩으로부터 굴착기 221대 수주

두산인프라코어는 프랑스 대형 건설기계장비 임대회사인 보룩(BEAULOC)으로부터 굴착기 221대를 수주했다고 밝힘. 이번에 수주한 굴착기는 22t급, 16t급, 8t급 등 총 12개 기종으로, 프랑스 전역의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보도됨. (연합뉴스)

## 이마바리 독야청청

일본 1위 조선사 이마바리는 2위 조선사 JMU와 합작사 Nihon Shipyard를 설립하여 1월 1일부로 정식 출범시켰는데 이마바리는 JMU의 지분 30%를 인수하면서 세력확장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됨. 양사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도 지분 인수범위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JMU는 이마바리가 자사 지분 30%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. (선박뉴스)